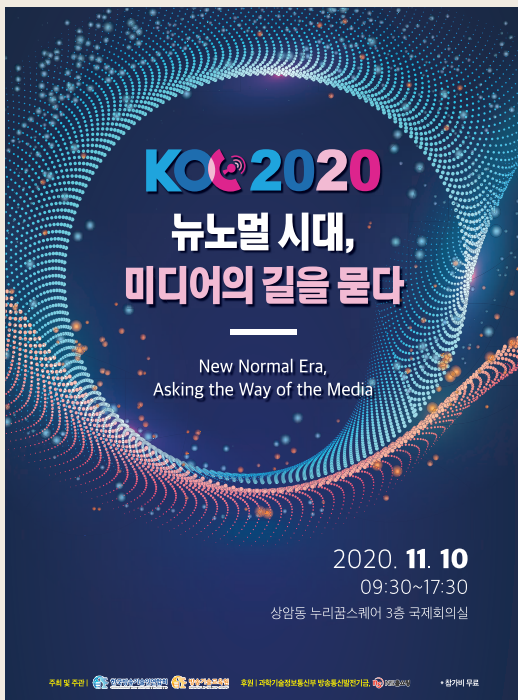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OC 2020 컨퍼런스 11월 10일 상암에서 개최



매년 하반기 인문학을 중심으로 미디어산업 동향을 알아보는 KOC(KOBETA Conference)이 11월 10일 개최된다. 이번 KOC 2020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문화를 초점으로 '뉴노멀 시대, 미디어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총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최될 이번 KOC에서는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前 상임위원과 김경달 KBS 이사,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박제훈 비브스튜디오스 이사, 김기현 CJ ENM 국장이 강사로 나와 각자의 관점에서 뉴노멀 시대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미디어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눌 예정이다.

## KBS, 독도파노라마 영상 서비스 시작



KBS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해 KBS1 UHD 채널 IBB 서비스를 통해 '독도파노라마영상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IBB(Integrated Broadcast Broadband)는 사용자가 지상파 UHD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면서, 방송망(Broadcast)과 브로드밴드(Broadband)를 통해 풍성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표준이다. 이번 서비스로 시청자는 24시간 독도 현황을 생생하게 안방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 양승동 KBS 사장, 국감서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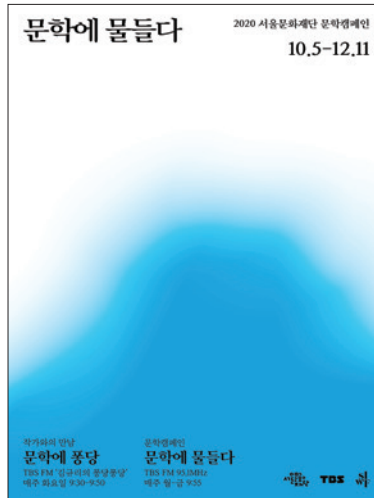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사장은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돼 있어 KBS의 재정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수신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 사장은 아울러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2의, 제3의 나훈아 쇼를 만들고 △대하 사극 부활 △고품질 한류 콘텐츠 제작 △지역방송 강화 △UHD, 5G, 인공지능(AI) 등 방송통신 기술 연구개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MBC 'DMZ 콘서트' 10월 23일 고양종합운동장 개최



10월 23일 오후 7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DMZ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DMZ 콘서트'는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의 의미와 비무장지대(DMZ)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Let's DMZ'의 문화예술축제인 '2020 LIVE in DMZ'의 메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DMZ 콘서트'는 전 세계 유일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가치를 알리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음악콘서트로 MBC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방영되었다.

## TBS, 2020 문학 캠페인 '문학에 물들다'



TBS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2020 문학 캠페인 '문학에 물들다'를 선보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유명 작가들이 직접 자신이 쓴 시와 소설 등 작품 일부를 낭독하고 해당 작품의 창작 배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학계를 지원하고 지친 시민을 위해 올가을

60명의 작가가 라디오를 통한 문학작품 낭독 캠페인으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10월 5일부터 10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TBS FM을 통해 9시 55분부터 약 2분 30초 동안 방송된다. 또 TBS FM '김규리의 풍당풍당'에서는 매주 1명의 작가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작품을 놓고 독자들과 직접 소통을 한다.

## KT스카이라이프, '사랑의 안테나' 국민사연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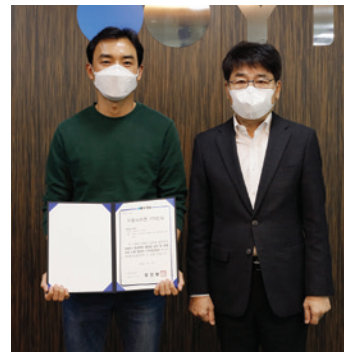


KT스카이라이프는 10월 5일부터 한 달간 2020년 하반기 '사랑의 안테나' 국민 사연 공모를 진행한다. '사랑의 안테나'는 스카이라이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난시청 지역 등 방송 시청 환경이 열악하거나 방송을 통해 문화와 정보 습득이 필요한 장애인, 취약계층 시설에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UHDTV와 스카이라이프의 UHD 수신기 및 방송서비스 평생무료시청권을 기증한다. 스카이라이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미디어 소외계층과 방송 시청이 어려운 복지시설 등 '사랑의 안테나' 혜택이 꼭 필요한 곳을 찾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각 국민 사연 공모를 진행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전국 총 280개소에 초고화질 방송 시설을 지원해왔다.

## CBS TV 및 라디오 가을맞이 개편

CBS는 가을을 맞아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했다. 라디오는 이번 개편으로 30년 역사의 CBS 전통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자키'가 종방되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진행하는 '김종대의 뉴스업'이 신설되었다. CBS TV는 '김동호의 기막힌 초대'를 신설하여, 좌절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프로그램 제작간 비대면 인터뷰를 도입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식의 제작 방식을 선보인다. CBS는 이번 프로그램 개편으로 시사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청자와 소통하는 미디어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 YTN, 자랑스러운 YTN인상 시상식 개최



최영훈 YTN 차장



이상무 YTN 차장

2020년 3분기 '자랑스러운 YTN인상' 시상식에서 기술관리부의 이상무 차장, 최영훈 차장이 '영상pool 통합망 설치 운용' 건으로 공로상 동상을 수상하였다.

## OBS, 다큐멘터리 '부평풍물대축제 24년의 기록' 방송



OBS는 인천 부평구와 함께 지난 24년간의 부평풍물대축제 발자취를 담은 다큐멘터리 '부평이 울린다 풍물! 마음이 열린다 소통!'을 10월 17일 방송했다. 비대면 부평풍물대축제

일환으로 제작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축제 주관인 부평구 축제위원회와 OBS가 함께 부평지역에서 '풍물'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비롯해 1997년부터 24년간 이어진 풍물대축제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코로나 시대의 풍물대축제 모습과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담았다.